



음성안내신호등이 설치된 중마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광양 중마초 앞 횡단보도 음성안내신호등

광양시는 학교 앞 도로에서 어린이 무단횡단이나 차도침범에 따른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중마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음성안내신호등을 설치했다고 7일 밝혔다.

중마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는 무등파크 아파트에서 등교하는 어린이들이 주로 건너는 횡단보도로 녹색어머니회에서 교통지도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방과 후 하굣길에는 하지 않아 어린이들이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이에 사는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 이를 감지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음성으로 안내해주는 보행자 자동인식 신호기인 음성안내시스템을 설치했다.

이 시스템은 보행신호가 빨간색일 때 보행자가 차도 쪽으로 접근하면 '위험하오니 인도로 이동해 주십시오'가 파란불로 신호가 바뀌었을 때에는 '좌우를 살핀 후 건너가십시오'라는 음성이 나온다.

또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 경우 차량에 우선적으로 신호를 부여해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등 사회적 손실을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시 토란·취나물 틈새 소득작목 육성

광양시는 농가 소득을 늘리기 위해 토란과 취나물을 틈새 소득작목으로 육성한다고 7일 밝혔다.

광양시는 1500만원을 들여 17개 농가 1.8ha를 대상으로 친환경 토란재배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토란은 4월쯤 심어 9~10월에 수확하는 작물로 탄수화물·단백질·무기질뿐만 아니라 식이섬유가 많아 배변 활동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감자류에 비해 칼륨이 풍부하고 토란대도 수확할 수 있다.

광양시는 또 취나물을 틈새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3000만원을 투입해 농가 3곳을 대상으로 취나물 비가림하우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취나물은 칼륨 함량이 높고 나트륨 체외 배출을 촉진할 뿐 아니라 감기·장염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 황금산단 화력발전소 건립 반대 확산

광양시·환경단체·순천시 "미세먼지 발생·대기질 악화" 공회회 등 무산...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허가 여부 주목

광양시 황금 일반산업단지에 추진중인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에 대해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광양지역 환경단체와 광양시가 "광양만권의 대기 질 악화를 초래한다"며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며 데이 인접한 순천시도 지난 5일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고 나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순천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광양만권 전기 수급이 충분한 상황에서 광양만권 환경오염만 가중되는 화력발전소 건립을 분별요하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순천시는 또 "신재생에너지라는 명목만 앞세우고 주민의 환경 피해, 지역민의 환경권 침해를 고려하지 않은 발전사업 시행사업 기업의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고 발전소 건립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발전에 필요한 다량의 우드펠릿이나 우드 칩은 국내 생산이 충분치 않아 수입 목재가 사용될 것이고 값싼 수입 폐목재 사용은 유독물질 발생 시킬 것"이라며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와 국

민의 호흡권 보장을 우선시해야 하는 국가적 책임과도 배치되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순천시의 다양한 노력과도 상충한다"고 밝혔다.

광양시도 지난해 8월 "최근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만큼 지역주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펼치겠다"며 "시민이 원하지 않은 발전소 건설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광양바이오매스 발전소는 광양그린에너지가 지난해부터 6800여원을 들여 광양 황금 일반산단 내 14만3653㎡ 부지에 바이오연료인 우드펠릿을 원료로 사용하는 220MW급 발전소를 추진중이다.

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열었지만 시민환경단체와 주민의 반대로 무산되는 등 우려국정을 겪었다.

광양시에 이어 순천시까지 반대하고 있어 허가권이 있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광양그린에너지는 환경영향평가서의 가결나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건축허가를 받아 올해 안에 착공할 계획이다.

광양그린에너지 관계자는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순수 나무에서 나온 연료만 사용하도록 허가를 받았다"며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은 천연가스 발전소 수준으로만 배출해서 미세먼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운영하게 된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읍 라벤더 마을에 청년 마을기업 추진 농식품부 '농촌 신활력 플러스' 공모사업 준비 박차

광양시는 광양읍 사곡리에 위치한 라벤더 마을에 청년 마을기업을 만들기 위한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는 지역특성에 적합하고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창의적 사업을 발굴해 농촌의 안정된 삶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주도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에 10개소를 선정하며 개소당 70억원(국비 70% 지방비 30%)이 지원된다.

시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공모를 위해 관계부서와 T·F팀 및 추진단을 구성하고 사업 예정지역의 민간 관계자를 대상으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정책설명, 전문가 교육 등을 내실 있게 준비해나

가고 있다.

또 지난 5월 분정마을에서 사업발굴 워크숍을 개최하고 광양읍 사곡리 일원에 식재되어 있는 라벤더 단지과 1975년도에 폐광 후 방치되어 있는 광관터널과 옛 목과 단지를 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들을 구상했다.

이와 함께 사업추진단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농촌신활력 중간사업 성공사례 지역 선진지 견학과 전문가 특강, 보안 워크숍을 통해 지역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확장할 예정이다.

이와 대학교수와 분야별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예비계획 기본 틀을 마련해 6월 중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광양읍 사곡리 청년층을 주축으로 마을기업을 설립하고 부분별



광양시는 최근 농촌의 안정된 삶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관련 주민교육을 실시했다.

리더 교육을 통해 라벤더 가공장소 개발과 판매, 폐 금광을 활용한 라벤더 라이프 휴식공간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청년 마을기업을 '뷰티라이프+농업융복합산업'으로 발전시켜 청년층

업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7일 고창군에 따르면 현재 사용 중인 생활폐기물매립시설의 매립용량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어 쓰레기매립 재로화를 위한 소각로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쓰레기 대량 예방과 전자연직인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소각로를 설치한다.

군은 총 사업비 141억원을 투입해 아산면 계산리 일원에 지하1층 지상4층(연면적 2433㎡)의 규모로 1일 25톤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2월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착수에 경관심의와 전복도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군은 또 소각시설 최적의 설계에 반영해 최근 실시설계용역 최종보고회를 완료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오는 2020년 3월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사용 중인 매립시설 용량확보를 위한 매립장 순환이용 장비사업과 병행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매립시설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kwangju.co.kr

정읍시 국도 1호선에 단풍 4500그루 식재

통석리·등천리 36.5km 구간 2020년까지 10억여원 투입 내장천변 등에도 2300본 심어...단풍관광 기반 구축 나서

단풍의 고장 정읍시가 지속적으로 단풍 나무를 심고 가꾸는데 주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정읍시는 시목(市木)이자 관광자원인 단풍나무를 심고 가꾸으로써 전국 제일 단풍고장으로서의 이미지를 이어가는 것은 물론 단풍관광 자원 기반을 구축해가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20년까지 10억원을 투입해 국도 1호선 정읍구간인 갑곡면 통석리에서 갑암면 등천리에 이르는 36.5km에 4500여본의 단풍나무를 심을 계획이다.

시는 첫 해인 올해 3억여원(국비50%, 시비 50%)을 들여 갑곡면 통석리에서 태인면 오봉리에 이르는 14.1km에 단풍나

무 650본을 심었다.

시는 이와 별개로 단풍나무 가로수 보식 사업으로 수성보건소~삼화타운, 신대인 초등학교 주변 등 결식 구간에 보수 작업을 마쳤다.

시는 앞서 2015~2017년까지 3년간 19억원을 투입해 내장천변 자연거림과 아양산 산책로, 내장산 경내와 단풍생태공원에 단풍나무 2311본을 심는 등 단풍나무 조성과 명품화 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는 모두 59개 노선 163.6km 2만 8298본으로 이중 단풍나무는 천변로와 관통도로 등 13개 노선 51.8km 8404본으로 32%를 차지해 정읍이 단풍의 고장임을 입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간길과 외곽적으로 아름다운 단풍나무로 가꾸기 위해 연중 가지치기와 병해충 방제와 제초, 급수, 비배 관리 등에 총력을 쏟는 한편 교통사고로 피해를



올해 단풍나무 650본이 심어진 갑곡면 통석리의 태인면 오봉리길 구간. <정읍시 제공>

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은 가로수와 겨울 도로제설용 염화칼슘으로 피해를 본 나무 등 결식 구간에 대한 나무심기 작업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 전북취재본부장

고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장 설치 속도낸다

실시설계 용역...2020년까지 아산면 계산리에 건립

고창군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7일 고창군에 따르면 현재 사용 중인 생활폐기물매립시설의 매립용량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어 쓰레기매립 재로화를 위한 소각로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쓰레기 대량 예방과 전자연직인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소각로를 설치한다.

군은 총 사업비 141억원을 투입해 아산면 계산리 일원에 지하1층 지상4층(연면적 2433㎡)의 규모로 1일 25톤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2월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착수에 경관심의와 전복도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군은 또 소각시설 최적의 설계에 반영해 최근 실시설계용역 최종보고회를 완료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오는 2020년 3월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사용 중인 매립시설 용량확보를 위한 매립장 순환이용 장비사업과 병행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매립시설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kwangju.co.kr



고창군 관계자들이 소각시설 실시설계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있다. <고창군 제공>

익산시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 총력

익산시가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 추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7일 익산시에 따르면 김철모 익산시장 권한대행이 이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산들강웅포마을을 찾았다.

이날 현장점검에서는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의 핵심인 체험관시설 신축 현장을 둘러보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시는 이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산들강웅포마을은 기존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통해 권역활성화센터 등 농촌관광 인프라를 구축했지만 세미나실과 숙박시설 등 대규모 체험객을 맞이할 수 없었다.

시는 지하1층-지상2층 건물로 신축되는 체험관시설에 80석 규모의 세미나실, 음식체험관과 11개의 힐링체험실(숙박 가능) 등이 조성된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대규모(100명 이상) 농촌체험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게 돼 농촌마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첫발...부지 매입 협약

군산시는 7일 전북대병원 측과 군산전북대병원 사업용지 매입 협약을 했다.

군산시와 병원 측은 환경부로부터 2016년 9월 부지를 군산 백석역에서 사정동 일대로 변경했다.

이후에도 건립 재원부족과 건립 여부에 대한 전북대병원 구성원간 이견으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었다.

그러나 시는 기존 매입비 50억원에 올해 정부 추경에 따라 국비 80억원을 추가 확보해 건립을 위한 첫 발걸음을 뒀다.

군산시는 오는 7월까지 부지매입 공고, 토지구획 조정 수평,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8월부터 보상협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문동신 시장과 강명재 병원장은 협약식에서 "군산시민의 열렬한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이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탄을 울렸다"며 "군산의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병원을 건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산·백금석 기자 nogusu@

군산대 '2018 천원의 아침밥 사업' 선정

군산대학교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2018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학생들의 아침밥 먹는 문화를 확산하고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돼 5개월간 운영된다.

쌀을 활용한 아침 간식사업을 개발해 시간 부족 등으로 아침 결식이 많은 학생의 아침밥 섭취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기간은 오는 11월까지로 교내 입주 식당에 위탁해 4000명 이상의 재학생에게 3000원 상당의 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게 된다.

이 기간 4000명 이상에 대해 40회 이상 음식이 제공돼 총 480kg의 쌀이 소비될 것으로 보여 쌀농사 안정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산·백금석 기자 nogusu@



산타페에 특별함을 더하다.

산타페 스페셜 모델 SANTA FE Inspiration 출시

일체형 외장 컬러, 고급 인터리어로 차별화된 디자인, 지능형 주행안전 기술 '현대스마트 센스' 기본화

bluehands 차량 관리 서비스는 불루핸즈가 책임집니다

■ 구입 편의성과 고객센터, 긴급호출 서비스 080-600-6000 ■ 정부 공인 표준연비 ▶ 디젤 2.2 AWD 지동 8(연18)·복합 12.3km/ℓ(도심11.3km/ℓ, 고속도로13.8km/ℓ) 3등급 | CO2 배출량: 156g/km | 배기량: 2,199cc | 공차중량: 1,929kg(연승), 1,885kg(5인승) ▶ 디젤 2.2 AWD 지동 8(연18)·복합 13.0km/ℓ(도심11.9km/ℓ, 고속도로14.7km/ℓ) 3등급 | CO2 배출량: 146g/km | 배기량: 2,199cc | 공차중량: 1,860kg(5인승) ▶ 디젤 2.0 AWD 지동 8(연18)·복합 13.8km/ℓ(도심12.7km/ℓ, 고속도로15.4km/ℓ) 2등급 | CO2 배출량: 138g/km | 배기량: 1,995cc | 공차중량: 1,839kg(7인승), 1,799kg(5인승) ▶ 가솔린 2.0T AWD 지동 8(연18)·797·복합 9.0km/ℓ(도심7.9km/ℓ, 고속도로10.9km/ℓ) 5등급 | CO2 배출량: 190g/km | 배기량: 1,998cc | 공차중량: 1,789kg(7인승), 1,749kg(5인승) ▶ 가솔린 2.0T AWD 지동 8(연18)·797·복합 9.3km/ℓ(도심8.4km/ℓ, 고속도로11.4km/ℓ) 4등급 | CO2 배출량: 180g/km | 배기량: 1,998cc | 공차중량: 1,720kg(7인승), 1,680kg(5인승) ▶ 위 연비는 표준조건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워터온도 등에 따라 실제 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급출발, 급가속 및 급제동은 유해합니다 ※ 장속주행을 합니다 ※ 변속자동차는 지정타이어의 캐시미어를 통해서만 운행하며, 전구 어느 곳에서도 같은 규격 같은 가로폭으로 바뀔 수 없습니다. ※ 타이어는 같은 규격 같은 가로폭으로 바뀔 수 없습니다.

